

# 종교인·요가 수행자·과학자가 펼치는 신념 토론회

## 왕비와 수도사와 탐식가

사피크 케사브지 지음

생각해보라. 당신과 친한 사람이 3개월 밖에 살지 못하게 되어서,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당신에게 묻는다면 과연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천국? 누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저승에서 가난한 사람이 위로받는다"는 전설 같은 주장 탓에 사회 혁명을 이루는 데 엄청난 장애가 있다"고 따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풀 수 없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철학 담론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이색 책이 나왔다. 신간 '왕비와 수도사와 탐식가'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퉁이 철학 담론을 소설로 풀어낸 책이다.



백혈병으로 13세 아들 시몽을 떠나 보낸 이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헌투의 나라' 인도에서 태어난 개신교 목사를 거친 저자의 삶 자체가 우선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책은 신앙생활에서 겪는 혼란 탓에 한 왕국의 임금이 궁극의 답을 찾기 위한 '신념 토론 대회'를 벌이며 시작된다.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기 위해 소설 형식을 띤다. 하지만 비교종교학 입문서에 비해 갈 정

도로 구성이 탄탄하다. 사회학, 정치학, 신학을 공부한 사피크 케사브지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부와 가난, 생과 사 등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해학으로 짚어낸다.

'세계 종교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국내 번역 출간된 그의 책 '임금과 현자와 광대'의 속편이다. 전작이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세계 5대 종교와 무신론 대표 선수의 첨예한 토론이었다면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를 들여다 본다.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고 보는 일신론, 자연과 만물은 원래 이렇게 존재했다고 보는 일체론, 세상은 물질과 과학적 원리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유물론의 세 관점을 비교한다.

각 사상의 발원자로 나선 것은 신앙심 깊은 수학자(일신론), 요가수행자(일체론자), 생물학자(유물론·무신론자)다.

냉정한 이성 소유자인 왕비와, 결혼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유지하는 독특한 사제인 수도사, 마음에 드는 여자와는 모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탐식가 등 등장 인물들이 지닌 의미도 깊다.

가령 이런 식이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에게 할 조연을 묻는 사회자에게 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회피할 수 없는 분해조. 죽을 후 영혼이 존속할 리 없으며, 화장할 경우 세포들은 열과 재가 되고, 염장할 경우 세포조직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고. 그러니 남아 있는 생의 매일을 즐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한 여성이 흐느끼자 요가수행자는 "육신 안에 담긴 삶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수명이 태어나고 죽을 병도 살인자도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 침잠해 새 삶을 준비하려고 말 하겠어요"라며 여성을 달랜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영원한 철학의 담론이다. 사진은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영화 '축제'의 한 장면.

반면, 그리스 출신의 여성 수학자는 차분히 반박한다. "지상에서 생의 계획에 중 지부를 찍는 죽음은 슬픔의 근원이지만 영원한 삶을 시작할 때 죽음은 긍정이 됩니다. 저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게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상기시키겠어요."

저자는 3일간의 난상 토론회를 통해 나

와 다른 신념을 지닌 타자가 무엇을 희망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답은 없다. 다만, 인간은 종교적이며 죽음과 희망의 문제는 모두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제시된다.

(**글리·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자유롭게 일하며 높은 성과 내는 비결은? 구글의 '인간 중심 조직문화' 들여다보기

### 구글의 아침은... 라즐로 북 지음



1998년 창립한 구글은 젊은 기업이다. 하지만 그 위세는 대단하다. 구글은 회사 이름을 넘어 아예 '인터넷 검색을 하다'는 동사가 된 지 오래고, 사람들은 500여개가 넘는 구글 앱을 내려받아 사용중이다. 무엇보다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구글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여섯 번이나 선정했다.

최고 요리사가 만든 호텔급 유기농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는 식당, 소소한 잡일을 맡아주는 세탁·미용·자동차 오일 교환 서비스, 업무 시간의 20퍼센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권까지 제공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건 당연지사.

전 세계 40개국 70여개 지사에서 5만명이 근무하는 구글의 문을 두드리는 지원자는 한해 200만명에 달한다.

구글 최고인사책임자이자 인사 담당 수석 부사장인 라즐로 북이

쓴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원 제 Google Work Rules)는 구글의 인간 중심적인 조직문화 등을 통해 구글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일하며 높은 성과를 얻어내는 지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정보 공유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관리자는 회사의 방침과 계획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와 관련해 재량권을 주는 걸 꺼려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직원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육감을 믿지 말라고 강조하며 공정하지 않게 보상하기, 최고의 것들을 공짜로 제공하기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RHK·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나는 결코 세상에 순종할 수 없다=등단 10년을 넘긴 청년 작가 이외수가 쓰다가 찢어버린 원고지 종이타미를 뒤져 쓰지 않은 미발표 시, 그림, 짧은 글들을 모아 펴낸 산문집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중에서 청년들과 공유하고 싶은 글들을 정리하고 최근 집필한 산문들을 추가했다. 원고지마다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 131점도 수록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삶에 대한 태도,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 작가로서 느끼는 창작의 고통과 번민 등이 펼쳐진다.

(**해비·1만3800원**)

▲우리는 모두 불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리처드 도킨스, 제인 구달, 앨런 랩슨 등 현재 최고의 지위에 오른 과학자 11인이 '진화'라는 커다란 큰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견해 그리고 최신 연구성과로 대답한다. 그동안 너무 모호해서, 또는



철학적 대상으로만 간주해서 과학이 건드리지 않았던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다. <청어람미디어·1만6000원>

▲사람을 품는 능글능신의 귀재 유비=중국의 국영방송 CCTV가 '고급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기획한 인기 인문학 프로그램 '백자강단'에서 자오위평 교수(베이징 유엔 대학)가 강연한 '삼국지' 인물 강의의 유비편을 엮은 책. 책은 술한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 기업을 일으킨 유비만의 위기관리 전략을 살펴본다. 저자는 어떻게 유비가 천하의 인재를 자신의 품에

끌어들일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분석했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길, 저쪽=권력과 폭력, 그 안에서의 인간의 선택과 존엄의 문제를 치열하고 진지하게 탐구해온 작가 정찬의 여덟번째 장편소설.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시대의 폭력을 배경으로 이 시대 비극적인 당사자들의 선택과 회생,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애절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희망이 없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도 그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사랑'을 통해 개인과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창비·1만2000원>

▲맘브루=라틴아메리카 포스트모던 문학을 대표하는 콜롬비아 작가 라파엘 움베르토 모레노 두란의 대표작.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인 모레노 두란은 볼 세대 이후 콜롬비아 문학의 대표 주자로, 오늘날 콜롬비아 현대문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다. 책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 용사들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역사관을 드러내는 소설로, 공식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은 역사와 양립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문학동네·1만5000원>

▲철학의 바다에 빠져라=스타강사 최진기가 철학사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서 역사적 배경도 친절하게 따로 설명해 놓았다. 역사적 배경과 함께 '고대 철학이 율타', '중세 철학을 지나다', '근대 철학을 만나다', '현대 철학에 빠지다' 순으로 철학자들의 사상을 읽어나가다 보면, 철학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보며 점차 철학의 재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스마트북스·1만5000원**)

### 어린이 책



▲로봇과 인공지능=WHAT? 시리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에 대한 역사와 로봇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보고 과학의 기초 지식을 탄탄히 쌓을 수 있다. 아이작 박사에게서 로봇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배우며 로봇이란 무엇이고, 로봇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깨우치게 된다.

(**what?school·9900원**)

▲마녀의 비밀 책방=아이들에게 책이 접단 기기의 화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한다. 책 속에는 테두리도 없고 규칙도 없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신비로운 마법과 마음을 울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속의 세상. 그곳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빠져들기를 바라며, '책 속으로의 여행'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좋은꿈·1만원**)

▲내가 진짜 기지야=학급 기지이자 한 소녀를 짝사랑 하는 소년 진우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작품. 신문과 기자, 기사에 대한 순수한 접근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기지의 직업과 역할에 대하여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게 한다. 어슬픈 주인공은 누구보다

도 뜨거운 열정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학급신문 기지에 임하는 자세를 다짐한다. <바람의아이들·8500원>

▲모두 나를 쳐다봐요=자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사람들이 쳐다보면 조금씩 작아지는 알프레드 무슨 병이 걸린 것일까.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 주는 올바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알프레드의 모습을 통해 들여다본다.

(**그린북·1만1000원**)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원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 /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070㎡ 매 6억5천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검색엔진에 **고창매 집짓기** 검색

###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 투데이 경매

무료 사이트 추천물건

- 운암동 대단지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 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 운암동 공구의 거리 빌딩 6차선 대로변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건물 공구, 자재 업체 입점추천 대지220㎡ 건물605㎡ 감정가7억4백 최저가4억9천
- 진월동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임대수익률 높은 빌딩 병원, 학원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 대지845㎡ 건물1343㎡ 감정가16억3천 최저가11억4천
- 첨단 상권최고 무인텔 11드라이브 인 방식 하루2~3회전가능 객실22개 대지1522㎡ 건물2000㎡ 감정가34억5천 최저가24억2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 단비플라워

죽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